



경북 문경시 공장화재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31일(수) 경상북도 문경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진압 중 소방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되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.
 - 행정안전부장관, 소방청장, 경찰청장, 경북도지사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고립된 구조대원 구조과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
 - 특히,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,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

담당 부서	사회조정실	책임자	소방정 이인중 (044-200-2683)
<총괄>	안전환경정책관실	담당자	경 감 임현철 (044-200-2686)